

17세까지 농구선수→브라질선 월급 19만원 축구선수→K리그 챌린지 22골→中 클럽서 45억 러브콜

# 열정 하나로 완성한 '코리안드림'

## 사커 피플

### 챌린지 득점왕 유력한 경남 말경

축구 반대하던 아버지 경남행 후 팬 변신 김중부 감독 헌신적 지도 기량 일취월장 '돈이 아닌 스토리를 쓰고 싶다' 굳은 결심 아이파크전 부상 불구 2골 1부 승격 선물

10월 8일 창원축구센터.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 챌린지(2부리그) 홈경기 하프타임. 경남FC 라커룸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부상당한 무릎에 테이핑을 해주려는 의무 스태프와 이를 피하려는 말경(23·브라질)의 충돌이었다. 결국 선수가 이겼다. 전반 1골을 넣은 그는 이를 악물고 후반전에도 1골을 추가, 팀에 2-0 승리와 함께 사실상 클래식(1부리그) 승격을 선물했다. "부산이 내가 부상을 입었다는 걸 몰라야 하지 않겠나. 다친 걸 알면 그만두지 않았을 거다."

그했다. 최고의 '한국형 용병'으로 꼽히는 말경은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을 위해 언제라도 헌신할 준비가 돼 있었다. 현재 22골로 득점왕 등극이 가장 유력하기도 하나 경남이 우승했다는 것이 훨씬 의미가 컸다.

처음부터 축구선수를 꿈꾼 것은 아니다. 12세 때 브라질 명문 상파울루 유소년 팀에 잠시 몸담기도 했지만 농구 지도자 아버지의 권유로 농구를 했다. 그런데 17세 때 뜻하지 않은 순간이 닥쳤다.

동네 친구가 "머리도 식힐 겸 축구나 하자"는 제안에 응한 것이다. 일종의 오디션이었다. 동네축구인 줄 알았는데 입단 테스트였다. 상파울루 주 리그에 속한 이투아노 구단 주장 현장에 있었다. 월급 100해알(약 3만 5000원)을 제안했다. 6개월 만에 프로계약을 했다. 최저 월급여 540해알(약 19만원)에 사인했다.

오래 전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에 크게 화를 냈다. 미국대학에 진학시켜 프로농구(NBA)까지 진출시키려는 꿈이 수포로 돌아간 탓이다. 아버지의 분노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올 초 입대 신분으로 경남에 입단하며 한국행을 택했을 때였다. "가장 열성적인 팬이 되었다. 내가 출전하는 경기는 항상 인터넷 생중계로 보신다. 경기 후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만큼 열렬한 모니터링 요원이 됐다."

경남에 처음 왔을 때는 막막했다. 낯선 환경과 문화에 쉽게 녹아들기 어려웠다. 그런데 첫 훈련부터 확신이 섰다. 시차 적응도 덜 된 상태에서 가진 전체 러닝을 마친 뒤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김중부 감독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괜찮다. 시간은 길다. 서둘지 마라."

믿음이 생겼다. 말경은 "그 때가 올 시즌 전체를 결정했다. 스토리를 쓰고 싶었다. 돈보다 내 흔적을 강렬히 남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고 했다. 김 감독은 기본부터 시작해 이방인 제자를 지도했다. 슛 템포와 동료 활용 플레이, 상대의 방어를 피하는 방법 등 집중레슨을 했다.

체력훈련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스스로를 보며 행복했다. 스승이 말경에게 경기 도중 화를 낸 것은 딱 한 번. 9월 대전 시티즌과 홈경기였다. 하프타임 때 한 바탕 헤어드라이어(선수들이 감독에게 크게 혼날 때 쓰는 표현)를 맞은 뒤 후반 2골을 몰아치며 역전승을 이끌었다.

말경은 부상전 직후 구단에 선물 하나를 부탁했다. 보너스가 아니었다. 홈구장 외부에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달라는 것. 고작 50만원 짜리 현수막을 본 그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다는 후문이다. "부산전에서 무릎이 부어올랐을 때, 모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 경기장 밖으로 절대 나갈 생각이 없었다. 사력을 다한 1년의 결실이 남은 45분에 있는데, 어떻게 교체해달라고 하겠나. 그냥 죽기 살기로 뛰었다."

자신을 사랑해준 이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경남에 처음 왔을 때, 또 여름이적시장에서 클래식 주요 명문 팀들의 솔한 제안을 거절하고 잔류를 택했을 때 말경은 오직 한 가



농구선수를 꿈꿨던 말경은 우연한 기회에 축구를 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무명의 축구 유망주는 경남FC의 간판선수로 자리매김하면서 코리안드림을 완성했다. 스포츠동아DB

지만 생각했다. "영원히 팀에서 회자될 선수가 되자. 내 자신의 목적을 남기자." 말경은 자기 자신, 또 모두와의 약속을 지켰다. 다만 미래는 모른다. 스포츠동아와 창원축구센터 내 구단 사무국에서 마주한 10월 18일에도 중국 슈퍼리그의 한 빅 클럽이 400만 달러(약 45억원) 규모의 러브콜을 보내왔다. 폭등한 가치는 이미 경남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일본 J리그 주요 팀들도 300만 달러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하고, 중국은 400만 달러 이상을 부른다. 클래식에서

이를 감당할 팀은 없다. 경남 조기호 대표이사는 "내년 예산안을 봐야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잔류는) 어려울 수 있다. 마음은 붙잡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잔류냐, 이적이나. 말경도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걸 이해한다. "정말 힘들었고, 많은 걸 이뤘다. 당장은 1년 간 떨어졌던 가족을 빨리 보고 싶다. 주변과 의논하고 심사숙고하겠다. 앞으로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도 변함없는 건 지금 난 경남의 일원이라는 사실이다." 창원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정몽규 회장과 핫라인 월드컵 전담팀 만든다

축구협 "모든 비난 수용"…11월부터 가동 말단 직원도 직접 보고 핫라인 시스템 구축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축구를 살리기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2018러시아월드컵에 올인한다. 정몽규 회장(55)이 직접 나서서 대표팀의 명예회복과 좋은 성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작정이다. 이를 위해 축구협회는 월드컵 전담팀을 조만간에 꾸린다.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32개국 가운데 우리가 최하위권 수준이고 최근 대표팀의 경기력이 팬들의 많은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고 선수들의 흐트러진 멘탈과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태도의 지적까지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12월 본선 초 주춤에서 포트4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도 경쟁한 강호들과 '죽음의 조'에 들어간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한국축구에 월드컵 본선은 죽음의 조가 아닌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16강 진출' '1승1무 이상' 따위의 추상적이고 허망한 목표를 내세우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몽규(55) 회장은 임원진 회의 열고 "협회 내에 월드컵 전담지원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10월 18일 "월드컵 프로젝트다. 역할과 내부소통의 창구를 단일화하면 대표팀 지원도 예전보다 훨씬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담당자들과 주요 업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선수점프 및 선발, 각종 훈련 프로그램 구축, 강화훈련 계획 등 신태용(47)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고유 권한을 제외한 행정 각 분야의 사실상 모든 부분이 월드컵

전담팀 중심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오직 대표팀만을 위한 스태프는 물론이고 협회 직원 가운데 일부는 다른 업무를 면제받고 아예 월드컵 전담팀에서만 활동하게 된다. 완전히 분리된 조직은 아니지만 일종의 파견근무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월드컵 전담팀의 활동기간은 이르면 11월부터 2018년 월드컵 종료까지다.

결재라인도 단순해진다. 직원에서 팀장~부장~국장~수뇌부 회의를 거치다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신설된 월드컵 지원팀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말단 직원이라도 정 회장에게 직접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호곤(66) 기술지원장(부회장)은 최근 유럽 일정 결산 브리핑에서 "회장님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체계를 거치지 않고) 소통이 쉬워지면 업무추진도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남정현 기자

## "한국축구대표팀 전체가 자신감 갖는게 중요"

### 맨유 엠버서더 박지성의 조언

"기복 심한 한국, 실전까지 준비가 중요 축구는 조직 싸움…강호들 두려워 말라"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엠버서더 박지성(36)이 "아시아 축구는 여전히 세계 수준과 격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 박지성은 10월 17일 아후재팬에 게재된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세계 최고 수준과 경기를 하지 않았기에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몇 년 사이 거리가 좁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대표팀의 전력에 대해서는 기복이 적다고 평가했다. 박지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은 업다운이 없다. 전력이 안정됐고, 성적이 기복도 적다. 한국은 기복이 심하지만 일본은 체계적인 운영으로 (새로운) 선수들도 종종 나온다. 확실한 기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되기에 크게

성적이 떨어질 수가 없다.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 나설 아시아 국가들에 충고도 남겼다. 박지성은 "세계 강호와 아시아 국가의 격차가 하루아침에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싸우기 전부터 포기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실전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강조했다. 박지성은 "일본의 경우 해외파가 많아 유럽 국가를 상대해도 압박은 적겠지만 축구는 개인이 아닌 조직이 싸우는 것"이라며 "개인의 경험치가 아니라 팀 전체로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러시아에서의 성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 수원삼성, 2020년까지 서정원 감독 체제로

### '2년+1년' 조건부 계약 연장

수원삼성이 서정원(47) 감독과 인연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수원삼성은 10월 18일 서정원 감독과 조건부 재계약(2년+1년)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감독은 2019시즌까지 팀을 이끈 뒤 상호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서 감독은 수원삼성의 레전드다. 선수시절 수원삼성 유니폼을 입고 2차례 우승(1999년, 2004), 아시아클럽챔피언십 우승(2001, 2002)의 영광을 누린 경험이 있다. 2012년 수석코치를 거쳐 2013년 4대 수원삼성 감독으로 부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2~3년간 팀이 전력 누수를 겪는 가운데서도 2014년과 2015년 팀을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준우승으로 이끌었으며 2015년에는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수원은 올 시즌 2년 연속 FA컵 정



서정원 감독

상을 노리고 있다. 서 감독을 향한 선수들의 신뢰도 높다. 베테랑 염기훈(34)은 "서 감독님 재임기간 동안 리그 준우승 2번에 FA컵 우승도 했다. 감독님의 능력이 검증된 것 아닌가. 내년 선수영입

이전에 감독님 재계약이 우선이지 않나"라며 9월에 서 감독의 재계약을 구단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재계약을 확정한 서 감독은 "신뢰를 보내준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원의 탄탄한 유스 시스템에서 배출된 젊은 자원을 육성시켜 보다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 만들겠다"고 계약연장 소감을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